

신동엽 "두 사람 왜 어색해?"...허경환·박성광, 무슨 일?

등록 2026.05.24 15:45:28



[서울=뉴시스]'미운 우리 새끼'(사진=SBS 제공) 2026.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박성광이 '미우새'에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다.

24일 오후 9시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KBS 22기 개그맨 동기이자 81년생 동갑내기인 허경환과 박성광이 활약한다.

박성광은 '마흔파이브' 멤버인 허경환, 박영진, 김지호를 위해 홀로 파티를 준비한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가장 먼저 도착한 멤버 허경환과 박성광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흐르고 이를 지켜보던 MC 신동엽마저 "두 사람 왜 어색하냐"며 의문을 드러낸다.

이후 박영진과 김지호가 합류하자 박성광은 이 파티가 마흔파이브 활동을 재추진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힌다.

그러나 허경환은 시큰둥한 반응과 함께 "그땐 왜 그랬냐"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넨다.

이어 허경환, 박영진, 김지호는 마흔파이브 활동 당시를 떠올리며 그간 쌓였던 고충을 털어놓는다.

박영진은 마흔파이브가 활동 못 하는 이유에 대해 "초반 3년은 박성광 때문에 활동을 못 했고 2년은 허경환 때문에 못 한 것"이라고 폭로한다.

이에 허경환은 마흔파이브 활동을 반대했던 숨겨왔던 이유와 박성광에게 지금까지도 서운한 점이 있다고 고백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